차세대열전2017!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오페라 최종공연

"진정한 예술은 혼란, 선택의 기로, 고통, 양심, 죄의식에서 비롯된다"

당신에게 '시' 란 무엇이었나요?...

김주원 창작오페라

너에게 간다

시 윤동주

2018.03.24.(토) 오후 5시

고양아람누리 아람극장

Goyang Aram Nuri Aram Opera House

작곡 및 대본 **김주원** 시 **윤동주 송몽규**

연출 **최이순** 지휘 **정주현** 피아노 **임태규** 연주 Neophilia Symphony Orchestra

윤동주 **김중일** 송몽규 **이두영** 나나코 **조한나** 고로키 **정민성** 강처중 외 **이일희** 박춘혜 외 **김현진** 윤영석 외 **김용현**

무대감독 **이진수** 영상감독 **김병문** 조명감독 **공홍표** 의상감독 **박선미** 분장감독 **이정수** 홍보 **한예솔**

예매 고양문화재단 The Goyang Cultural Foundation 1577-7766 www.artgy.or.kr 홈페이지 및 전화예매 주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Arts Council Korea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ARKO Creative Academy 후원 WITH CLASSIC 위드클래식 YDH 법률사무소 율대합

윤동주의 시적 예술. 그리고 이 시대 우리들의 자화상을 그려낸 김주원 작곡의 창작오페라

“너에게 간다”

시놉시스

“진정한 예술은 혼란, 선택의 기로, 고통, 양심, 죄의식에서 비롯된다.”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친숙한 시인 윤동주.
고통 속에서 시를 써나갔던 시인에게 ‘시’란 무엇이었을까?

혼돈의 시기 일제 강점기를 살아가는 두 청춘. 동주와 몽규. 문학적 재능이 뛰어난 윤동주에게는 동갑내기 고종사촌인 송몽규가 있었다. 둘은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랐고,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할 수 있는 울타리 같은 존재로 성장한다. 하지만 항상 자신보다 모든 면에서 앞서 나가는 몽규에게 보이지 않는 열등감을 느끼는 동주. 일제에 대한 저항을 직접적인 행동을 통해 실현하고자 했던 몽규와, 펜으로 저항하고자 했던 저항시인 동주. 이렇게 둘은 많은 부분이 달랐지만 누구보다 친했고, 누구보다 서로를 의지하며 같은 목표를 향해 시대를 살아나갔다.

시대를 고민했던 두 청춘이 지금의 시대를 말한다. 하고 싶은 일과 해야 되는 일에 대한 선택, 문과와 의과 사이에서의 갈등, 뛰어난 친구에 대한 열등감과 같은 감정들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도 많이 닮아있다. 주인공들의 삶을 통해 나와의 공통점을 발견해나가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과연 하고 싶은 일인지,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고민과 고통 가운데 무언가를 해냈을 때의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는지,,, 고통의 길을 걸어가면 시를 써야 했던 윤동주 시인의 시적 예술은 그랬기에 더 아름답지 않았을까?

시인이 남긴 주옥같은 시를 중심으로 하여 그의 삶을 꼼꼼히 추적하면서 시인에 대한 존경심을 마음에 담아, 그가 남긴 발자취들을 음악으로 재현해보고자 한다. 이 작품이 만들어지는 동안 그 시절 윤동주에게로, 우리는 당신에게로 간다.

오페라 넘버

학창시절

비애*, 자화상*, 술가락
문과와 의과 사이의 갈등
연희전문학교 졸업식
창씨개명을 하는 것
참회록*

유학시절

부녀간의 대화
차가운 마음
그럴지도 모르지
엇갈린 사랑
고로키의 독백
조선의 독립
너는 시를 써라 나는 총을 들테니
몽규 잡혀가다, 밤
쉽게 쓰여진 시*
시는 무엇인가, 무서운 시간*
이별, 별 헤는 밤*, 감옥, 서시*

*표시는 윤동주 시인의 시

아티스트 소개


작곡 및 대본
김 주 원


시
윤 동 주


시
송 몽 규


연출
최 이 순


지휘
정 주 현


피아노
임 태 규


윤동주 役
테너 김 중 일


송몽규 役
베이스 이 두 영


나나코 役
소프라노 조 한 나


고로키 役
바리톤 정 민 성


강처중 役 외
테너 이 일 희


박춘혜 役 외
메조소프라노 김 현 진


윤영석 役 외
바리톤 김 용 현


연주
Neophilia Symphony Orchestra


무대감독
이 진 수


영상감독
김 병 문


조명감독
공 홍 표


의상감독
박 선 미


분장감독
이 정 수


홍보
한 예 솔

2018.03.24.(토) 오후 5시 고양아람누리 아람극장 Goyang Aram Nuri Aram Opera House 예매 고양문화재단 The Goyang Cultural Foundation 1577-7766 www.artgy.or.kr 홈페이지 및 전화예매